



특집—'나'의 문학적 실존 형식

김태환·정과리·홍성희·선우은실·이은지·임정균·김대산

『숨-문학의 이름으로』 제15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532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나의 문학적 실존 형식” 특집으로 엮어

반연간 문학 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제15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은 <나의 문학적 실존 형식>을 주제로 내걸었다. 먼저 문학사적·문학 이론적 차원의 성찰이 앞자리에 놓인다. 김태환 교수는 서구 문학의 역사에서 ‘문학적 자아’의 역할을 점검하고 근대 이후의 “재귀적 문학”이 정초한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있는 오늘날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정과리 교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생산/소비의 작동 체계”가 개인성에 대한 환상을 오히려 심화하며 실제로는 “개인의 내부를 삼켜버”렸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문학적 실존”이, “단독자가 됨으로써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경로가 될 가능성을 살핀다. 그다음, 더욱 격동하고 있는 시 장르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문학평론가 홍성희 씨와 선우은실 씨가 최근 시에서의 ‘나’의 출현 방식과 존재 방식을 묻는다. 홍성희 씨는 최근 시가 “나’와 ‘시’의 균열을 동시에 발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젊은 시인들이 이와 관련된 방법(론)적 고투를 벌이는 현장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선우은실 씨는 매체와 플랫폼이 다양화되는 최근의 조건 속에서 특히 “시-매체”가 어떻게 현실과 ‘나’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지, 그 면모를 새로운 시 형식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이어서 소설 장르에 대한 논의. 문학평론가 이은지 씨와 임정균 씨 그리고 김대산 씨는 최근 소설 속에서 ‘나’의 문학적 실존 양상을 살핀다. 이은지 씨는 주체 중심 사유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을 제공한 신유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며 문학적 실존이 스스로를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 바라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칸트적 명제의 유효성과 의의를 최근의 소설 속에서 점검한다. 임정균 씨는 문학적 실존 방식 속에서 문학과 정치의 새로운 관계 양상을 논하며 최근의 문학에서 ‘나’가 빈번히 호명되는 것은 “재현되지 않는 것의 현시”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가 갖는 급진성”을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맥락에서 임정균 씨는 최근의 문학에서 ‘우리’로 통합되지 않는 ‘나’가 가진 정치적 성격을 읽어내고 있다. 김대산 씨는 한유주의 소설 『숨』에 대한 자세히 읽기를 통해 삶과 죽음에 얽힌 실존적 자아의 비밀을 풀어보고자 한다. 지금 실존의 의의가 새삼 무엇인지를 고쳐 묻는 진중한 논의를 만날 수 있다.

1. 근대문학의 전통과 자아의 문제 | 김태환(서울대 독문과 교수)
2. ‘나’와 문학적 실존 | 정과리(연세대 국문과 교수)
3. 그런 나는 차마_최근 시에서의 ‘나’의 출현 방식 | 홍성희(문학평론가)
4. 매체 다양화 시대에 시-매체 읽기(Ver. 2022)_성다영·윤지양·황유원의 ‘낯선 형식’을 통해 | 선우은실(문학평론가)
5. 객체 지향 세계에서 존재하기_신유물론과 그 문학적 실제 | 이은지(문학평론가)
6. 너는 내 얼굴을 알아보아라_민주주의의 원리와 ‘나’의 정치적 급진성: 황정은의 경우 | 임정균(문학평론가)
7.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_한유주의 『숨』이 제기하는 문학적 자아의 문제 | 김대산(문학평론가)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글 쓰는 ‘나’와 글 속의 ‘나’

1. 돌아오지 않는다 | 오은경
2. 구름인 양 하여라 | 임수현
3. 비교, 문학 | 임지은
4. 조각들 | 한유주

제8회 문학실험실 포럼—문학 번역의 본질과 실제, 그리고 영향 관계

번역, 특히 문학 번역의 본질과 실제는 무엇일까. 금년도 <문학실험실 포럼>은 이 문제에 집중해 그 영향 관계까지 살펴보고 있다. 전문 번역가인 정영목 이화여대 교수는 번역의 본질적 의미를 논하는 차원에서 번역이 “단순한 파생성, 이미 주어진 것을 복제할 때 생겨나는 ‘진부함’을 넘어서 “번역 나름의 기운을 발산하는” 새로운 “쓰기” 과정임을 강조한다. 문학 영역에 초점을 맞춘 조재룡 고려대 교수는 번역가가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작용’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

며』 번역의 실제 예를 들어, 문학작품 번역이 “텍스트의 특수성, 문체를 번역하는 일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문학작품 번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곤혹을 동시에 토로하는 글로도 읽힌다.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을 왕성히 수행해온 최애영 작가는 직역과 의역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학 번역의 경우 원어와 도착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흥미롭게 제시한다. 김숨의 소설을 예로 들어 최애영 씨는 번역된 작품이 읽힐 문화권의 독자들을 배려하면서도 번역이 “좀 더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한국문학의 낯섦”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황호덕 성균관대 교수는 20세기 예술에서 번역이 수행한 적극적 기능과 영향 관계를 상세히 점검한다. 구체적 예시들을 통해 한국문학사에서 번역이 행사한 “통치성”을 논하는 이 글은 다음 호에 그 후속 논의가 실릴 예정이다.

1. 번역자의 눈으로 본 문학 번역 | 정영목
2. 문학 번역의 특수성, 첫 이야기 | 조재룡
3. 한국문학, 그 낯섦을 번역하기 위하여 | 최애영
4. 번역과 영향, 20세기 예술에서의 번역적 통치성 (1) _동서에서 남북까지의 연쇄들, 줄리언 반스의 쇼스타코비치와 김연수의 백석 | 황호덕

그때 그 실험

<그때 그 실험> 코너에서는, 김승옥의 첫 창작집 『서울 1964년 겨울』에 주목했다. 박혜경 문학평론가가 ‘비윤리성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감수성의 혁명’으로 주목받았던 4·19세대의 선두 주자 김승옥의 문학사적 가치를 재론한다.

지금 이 언어

<지금 이 언어> 코너에서는, 시 영역에서 문학평론가 조대한 씨가 이민하의 『미기후』와 이수명의 『도시가스』에 대해, 소설 영역에서는 문학평론가 박혜진 씨가 김태용의 『러브 노이즈』와 구병모의 『상아의 문으로』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제공하고 있다.

시와 소설+텍스트 실험 공간

이번 호 창작 난에서는 세대와 성별을 넘어 다채롭게 펼쳐지는 강성은·김석영·김승강·김유림 씨의 시편들과 서장원·윤성희·이민진 씨의 소설들을 만날 수 있다. <텍스트 실험 공간>에 수록된 소설가 김효나 씨의 작품 또한 풍성한 문학적 실험 정신의 향연을 제공한다.

차례

특집: '나'의 문학적 실존 형식

1. 근대문학의 전통과 자아의 문제 | 김태환
2. '나'와 문학적 실존 | 정과리
3. 그런 나는 차마, 최근 시에서의 '나'의 출연 방식 | 홍성희
4. 매체 다양화 시대에 시-매체 읽기(Ver. 2022)_성다영·윤지양·황유원의 '낯선 형식'을 통해 | 선우은실
5. 객체 지향 세계에서 존재하기_신유물론과 그 문학적 실제 | 이은지
6. 너는 내 얼굴을 알아보아라_민주주의의 원리와 '나'의 정치적 급진성: 황정은의 경우 | 임정균
6.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_한유주의 『숨』이 제기하는 문학적 자아의 문제 | 김대산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글 쓰는 '나'와 글 속의 '나'

- 돌아오지 않는다 | 오은경
- 구름인 양 하여라 | 임수현
- 비교, 문학 | 임지은
- 조각들 | 한유주

시와 소설

-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 외 2편 | 강성은
- 폴리오미노 외 2편 | 김석영

- 달을 쏘다 외 2편 | 김승강
-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자 외 2편 | 김유림
- 여름이 지나가면 | 서장원
- 가족사진 | 윤성희
- 영인에 관하여 | 이민진

텍스트 실험 공간

- 다중 음성의 정원 | 김효나

제8회 문학실험실 포럼 : 문학 번역의 본질과 실제, 그리고 영향 관계

1. 번역자의 눈으로 본 문학 번역 | 정영목
2. 문학 번역의 특수성, 첫 이야기 | 조재룡
3. 한국문학, 그 낯섬을 번역하기 위하여 | 최애영
4. 번역과 영향, 20세기 예술에서의 번역적 통치성)_ 황호덕

제8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 김현문학패 소개
- 선정의 말 수상소감 우주자석에서 자석을 샀다 | 신해욱
타협으로서의 문학 | 정지돈
- 수상 작가론 천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떨어진다 신해욱론 | 전승민
문학 빼고 정치돈론 | 김정연

지금 이 언어

-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슬픔과 드러난 세계의 비극_이민하의 『미기후』와 이수명의 『도시가스』 | 조대한
- 의미들의 의미_김태용의 『러브 노이즈』와 구병모의 『상아의 문으로』 | 박혜진

그때 그 실험

- 비윤리성의 윤리_김승옥의 첫 창작집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해 | 박혜경